명례방 모임

(구역 모임)

2026.11.



브루클린교구 베이사이드 한인천주교회

1. 시작기도

✙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◎ **아멘.**

✙ 오소서 성령님,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
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.

◎ **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, 저희가 새롭게 되리이다.**
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.

✙ 기도합시다.

◎ **하느님,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**
바르게 생각하고,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.
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 ◎ 아멘.

2. 말씀 나눔

1) 말씀 듣기 : **마태 25,31-46(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왕 대축일 복음)**

2) 침묵 후 다시 한번 말씀 봉독

3) 말씀 나눔

<묵상 더하기>

- 우리 곁에 가장 작은 이들은 누가 있을까요?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만난 적이 있나요?
-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?

4) 자유 기도

3. 본당 공지사항 및 구역별 공지사항

- 11/28(토) Homecoming day 15:00, 11/29(주일)에는 대림 1주일 미사 이후, 전신자 대림시기 일일피정이 있습니다. 피정은 권선중 신부님께서 "상처와 치유"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실 것입니다.
- 12/8(화)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미사가 본성전에서 20:30분에

있습니다. 의무 대축일입니다.

- 대림시기의 매주 주일, 혹은 본당 판공성사 기간(12/16(수)20:00~, 12/21(월)14:00~16:00/18:00~)을 통해 고해성사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. 고해성사를 보신 분들은 성사표를 꼭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4. 마침기도(본당 설립 30주년 기도문)

○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
넘치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
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무수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.

● 이제 저희는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며
당신의 뜻에 맞갖은 공동체로 거듭나고자 하오니
삶의 무게와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
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저희를 굽어보소서.

○ 주님, 저희가 이 은총의 시기에
사랑이 아닌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어
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,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
일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.

● 또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과
주님을 알고도 떠나있는 모든 이들에게도
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.
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

◎ 아멘.

○ 본당의 주보 성인이신 성 로버트 벨라민

●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

○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

●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

5. 사목단상

누가 무엇을 원하는지,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관심이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관심을 두지 않으면 놀랍게도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. 엄마들은 말도 못 하는 아기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는 합니다. 물론 처음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애를 쓰지만,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기가 왜 우는지 알아채고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줍니다. 그것은 엄마가 아기에 대해 온 신경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.

아주 간혹 뉴스를 통해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아서 벌어지는 부도덕한 소식을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. 이해도 되지 않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, 우리가 눈과 귀를 닫으면 얼마든지 도움이 필요한 타인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

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함께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.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.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사람, 길에서 자기도 모르게 물건을 떨어뜨린 사람,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야 하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죠. 또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마음이 힘들거나 고민이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. 하다못해 길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비켜줄 수도 있고,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게 잡아줄 수도 있고, 버스나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해 줄 수도 있습니다. 그러한 마음은 단순한 선의를 넘어서, 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. 타인을 생각하고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그러한 마음은 생겨날 수 없습니다.

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춘, 도움이 필요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시는 모습의 표본입니다. '임금'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가장 자신을 낮추고 섬기려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. 그 예수님을 믿는,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.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주위를 살피며 도움을 주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. 그러한 삶이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. 우리 임금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진정한 신앙인으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면 좋겠습니다.